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2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 ‘이 문장은 거짓이다.’(L)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에는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L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따라서 L이 참이라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L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하므로 L이 거짓이라는 가정도 버려야 한다.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다. 거짓말쟁이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 도출되는데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한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으므로 자기 지시성이 있다. 20세기 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였다.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 한다.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언어라 한다. 메타언어란 대상 언어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여 만든다. 이때 메타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다. 만약 메타언어 뒤에 진리 술어를 하나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언어가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술어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

이라고 말하는 진술은 있을 수 없기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이라면 참일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의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어도 역설이 발생한다. 앞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뒤의 진술인 ‘앞 문장은 참이다.’는 거짓이 된다. 이는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 되어 모순율을 위반한다. 반대로 앞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01

▶ 23051-0106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② ㉠은 ‘이 문장이 있다.’보다 위계가 낮다.
- ③ ㉠ 뒤에 ‘거짓이다’를 덧붙이면 ㉠은 대상 언어에 속하지 않게 된다.
- ④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 ㉠에 나타난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 ⑤ ㉠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02

▶ 23051-0107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참과 거짓이 모순 관계라고 규정한 것.
- ② 진술을 메타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분한 것.
- ③ 진술의 진리치가 두 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
- ④ ‘거짓이다’라는 의미의 위계가 ‘참이다’보다 높다고 정한 것.
- ⑤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가 거짓인 진술의 개수보다 더 많다고 간주한 것.

03

▶ 23051-0108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크립키는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 ②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③ 타르스키와 크립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보았다.
- ④ 크립키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 ⑤ 타르스키와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04

▶ 23051-0109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기 지시성 있음.	자기 지시성 없음.
역설임.	A	B
역설이 아님.	C	D

- ① 고전 논리에서는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된다.
- ②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라는 진술은 B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라는 진술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④ ‘신라의 수도는 경주이다.’라는 진술은 D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C와 D에 해당하는 진술은 진리 술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05

▶ 23051-0110

윗글과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T1)라고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 없다. 우선 T1을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에 포함되므로 T1은 거짓이 된다.

이제 T1을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a는 b이다.’에 대한 거짓인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이다. 즉 T1에 대한 거짓인 진술인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T2)가 참이면 T1은 역설이 된다. 하지만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역설로 볼 수 없다.

- ①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② T2의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③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T1과 T2의 ‘고등학생’에 갑돌이의 친구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0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태종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楮貨)를 도입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천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했다.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은 저화 사용을 꺼렸고 재질의 특성상 위조도 ㉣ 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에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삼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되* 또는 저화 1/2장으로 정했다. 주화와 저화는 ㉤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화의 정착을 위해 저화의 사용은 얼마 후 금지시켰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발행 다섯 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되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 주화를 환수했다.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인해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 하고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 늘리고 은 1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錢荒)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은 이자율이 높아졌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이 아닌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다. 발행 당시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은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문: 조선 시대에, 화폐를 세던 단위.

*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되는 한 말의 10분의 1임.

*냥: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06

▶ 23051-01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저화는 식물의 껍질을 재료로 삼아 만든 화폐이다.
- ② 사삼서는 태종 및 세종 때 화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 ③ 저화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 서로 교환이 가능했다.
- ④ 발행 당시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이었다.
- ⑤ 세종의 주화 제도는 중국이 주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07

▶ 23051-0112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기도 했다.
- ② 전황 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보다 주화로 상환해 주는 것을 더 선호했다.
- ③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보는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1문당 명목 가치는 하락했다.
- ④ 1678년을 기준으로 은 2냥은, 같은 해 발행된 상평통보 800문으로 관청에서 바꿀 수 있었다.
- 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 쌓인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당시의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다.

08

▶ 23051-0113

〈보기〉는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정책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백성들이 만든 베를 관청에서 저화로 매입하였다.
 ㄴ. 백성들이 저화를 지불하면 관청에서 국고미를 방출하였다.
 ㄷ. 중앙 정부는 관리들에게 달마다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였다.
 ㄹ.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9

▶ 23051-011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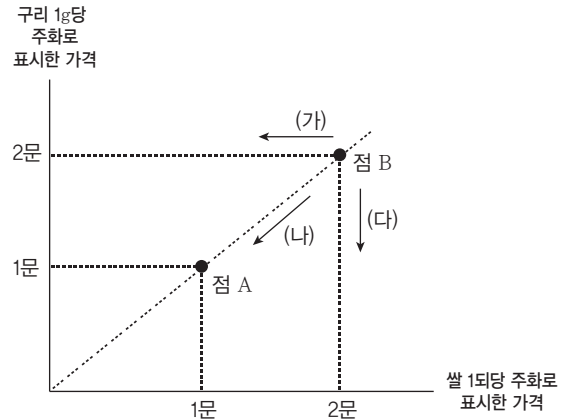
- ① 중형전과 대형전의 액면 가격은 동일한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② 초주단자전과 중형전의 액면 가격은 다르지 않은데 구리의 함유량은 중형전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 ③ 초주단자전처럼 중형전도 명목 화폐 형태로 유통되어 상평통보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④ 중형전은 대형전과 달리 액면 가격의 척도가 은과 연관되어 있어 시장에서 중형전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⑤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은데 주화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중형전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10

▶ 23051-0115

〈보기〉는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구리 1g이 들어 있다고 가정할 때, 위 그래프를 통해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상황은 ㉡ 구리 1g 가치가 쌀 1되와 동일합니다. 이후 주화로 표시한 물품 가격이 변한 점 B의 상황에서는, ㉢ 구리 1g으로는 쌀 1되를 살 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어서, ㉤ 주화 1문을 녹여 팔아 2문의 차익을 얻으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해 점 B의 상황을 (가)~(다) 방향 중 (나)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시도는 ㉥ 점 B의 상황을 (가)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오히려 포로 거래를 하려는 백성들이 늘면서 주화의 정착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 23051-0116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모(圖謀)할
- ② ㉢: 통용(通用)되고
- ③ ㉣: 빈번(頻繁)했기
- ④ ㉤: 범용(汎用)이 되게
- ⑤ ㉥: 용이(容易)한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물의 광합성이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과 이산화 탄소가 필요한 단계인 암반응으로 ㉠ 나뉜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 일어난다.

명반응에서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된다. 이때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 따라서 광합성은 ㉢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효율,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 떨어질 수 있다. 벼는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하지만 벼를 사막과 같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그러면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해, 벼 내부는 이산화 탄소 농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벼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

(나) 식물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부산물은 산소뿐이므로 청정하다. 이러한 식물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인공 광합성’이라 한다. 인공 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반응을 뜻한다.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기존의 화학 공정을 이용하여 다른 유기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인공 광합성 기술은 빛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별도의 충전 장치에 모아 두었다가,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 생겼다. 그래서 빛에너지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 화학 전지가 고안되었다. 이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으로, 물에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이 담겨 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양극인 작동 전극은 반도체 물질이, 음극인 상대 전극은 백금이 사용된다.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물은 수소 이온(H⁺), 전자(e⁻), 산소(O₂)로 분해되어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백금으로 이동하여 물속의 수소 이온과 결합하므로 백금 쪽에서는 수소(H₂)가 발생한다. 이때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빛에 부식이 되는 반도체 물질은 전지의 안정성을 낮추므로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이 조건은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흡수한 빛에 의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두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띠틈이라 하고, 단위로는 eV*를 사용한다.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은 1.3eV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작으면 반도체 물질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물이 분해되지 않아 수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띠틈이 3eV를 ㉥ 넘으면 에너지가 강한 파장인 자외선을 주로 흡수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전지의 효율이 낮아진다. 이때는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 주면 띠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물질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조사된 빛에너지의 더 많은 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V: 전자볼트, 1eV는 하나의 전자를 1V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단위임.

12

▶ 23051-0117

(가)와 (나)의 중심 화제를 고려할 때, 서술된 내용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 (가)는 광합성 효율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하였고, (나)는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관한 원리를 제시하였고, (나)는 광합성의 원리가 사용된 특정한 기술을 설명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발견 과정을 소개하였고, (나)는 인공 광합성 기술에 대한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검토하였고, (나)는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살폈다.
- ㉤ (가)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였고, (나)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을 소개하였다.

13

▶ 23051-0118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광전기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에는 모두 백금을 사용한다.
- ② 인공 광합성 기술에서 축전 장치는 물을 분해할 때 얻은 전기를 모아 두는 데 사용된다.
- ③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수분과 이산화 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다.
- ④ 에너지띠 이론에서 원자가띠의 에너지와 전도띠의 에너지를 서로 합한 것을 띠틈이라고 한다.
- ⑤ 벼에 포함된 루비스코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할 때보다 산소와 결합할 때 광합성 효율은 낮아진다.

14

▶ 23051-0119

①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반응에 필요한 NADP^+ 가 명반응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 ②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기 때문이다.
- ③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에 루비스코가 관여하는 동안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④ 명반응에서 NADPH가 합성될 때 생성된 물은 암반응을 진행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 ⑤ 포도당을 합성할 때 필요한 것을 명반응에 의해 생성된 NADPH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15

▶ 23051-0120

식물의 광합성(A)과 광전기 화학 전지(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와 B가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면, 모두 실제로 유기물을 만들어 낸다.
- ㄴ. A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광합성 색소가 빛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B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극이 빛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 ㄷ. B가 광합성의 특정 단계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면, B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A의 과정 중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ㄴ, ㄷ

16

▶ 23051-0121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반도체 물질 A~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특징 \ 종류	A	B	C
띠틈(eV)	1.1	2.5	3.1
빛에 의한 부식	없음	있음	없음

단, 충분한 양의 빛에너지를 광전기 화학 전지에 조사한다고 가정한다.

- ① A는 B와 달리 빛에 의한 부식이 없어서 작동 전극으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 ② C가 B보다 띠틈이 더 커서 C는 작동 전극으로, B는 상대 전극으로 사용해야 한다.
- ③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다.
- ④ C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 주면, 첨가하기 전보다 가시광선의 흡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 ⑤ A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로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7

▶ 23051-0122

문맥상 ㉓~㉗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㉓: 수익금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
 ② 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너에게 다가갔다.
 ③ ㉕: 곧 너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것이다.
 ④ ㉖: 오늘 온종일 비가 내려서 계획에 지장이 생겼다.
 ⑤ ㉗: 도둑은 부역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㉑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복사꽃 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르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랑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 신경림,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
 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
 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뉘라서 사람이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여요. [D]

당신이 가신 뒤로 사랑이 멀어졌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
 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E]

- 한용운, 「사랑의 측량」

(다)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이란 상투어가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사랑한다. ㉓으레 폭포수 밑 깊은 못 속에는 용이 살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 폭포수에는 동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서구인들은 분수를 사랑한다. 지하로부터 하늘을 향해 힘차게 뿜어 오르는 분수, 로마에 가든 파리에 가든 런던에 가든, 어느 ㉔도시에나 분수의 물줄기를 볼 수 있다. 분수에는 으레 조각이 있고 그 곁에는 콩코르드와 같은 시원한 광장이 있다. 그 광장에는 비둘기 떼가 날고 젊은 애인들의 속삭임이 있다. 분수에는 서

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

폭포수와 분수는 동양과 서양의 각기 다른 두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체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자.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야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도시의 가장 변화한 곳에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 ① 하나는 숨어 있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분수는 도시의 물, 문명의 물인 것이다.

장소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물줄기가 정반대이다. 폭포수도 분수도 그 물줄기는 시원하다. 힘차고 우렁차다. 소리도 그렇고 물 보라도 그렇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자. ② 폭포수의 물줄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 만유인력, 그 중력의 거대한 자연의 힘 그대로 폭포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이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아주 작은 도량물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모든 물의 그 움직임에는 다를 것이 없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에의 순응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준다.

그러나 분수는 그렇지 않다.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③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④ 끝없이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18

▶ 23051-012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적 공간을 제시하여 새롭게 알게 된 가치의 중요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으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자연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부정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이에서 파생된 절망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

▶ 23051-01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실천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가 강조하려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는 추상적 개념을 가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

▶ 23051-01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재 처지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은 특정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의아함을 드러낸다.
- ② ㉠은 자연과 일체화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은 특정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은 삶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전환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평소와는 다른 삶과 연결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서양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고, ㉡은 글쓴이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공간이다.

21

▶ 23051-0126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용운의 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임’ 혹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측량」에 드러나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통념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많이 알고자 하면서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처음에 서로에게 가졌던 사랑의 숭고함을 소실시킨다. 그래서 「사랑의 측량」에서는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나’는 임과 멀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익숙함이 아닌 숭고함을 위해 거리가 멀어지는 슬픔을 받아들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자 한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임을 향한 사랑의 숭고성을 노래한 것이다.

- ① [A]: ‘즐거운 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 측량이 ‘사랑의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사랑’과 ‘거리’와의 역설적 관계를 밝힌 후 ‘당신’을 위해 ‘나’의 웃음이 많아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 ⑤ [E]: 임과의 ‘거리’가 멀어져 슬픔을 느끼면서도 임에 대한 사랑이 커져 가는 숭고함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22

▶ 23051-01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가 폭포에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폭포’와 ‘분수’가 있는 곳을 언급하며 숨어 있어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③ ㉢: ‘폭포수’의 모습을 제시하여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순응하는 ‘물의 본성’을 담은 ‘폭포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분수’의 움직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물의 천성을 거역한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⑤ ㉤: ‘분수’의 지속성에 대한 것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23

▶ 23051-012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철도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공간과 시간 개념의 혼란을 지적한 바 있었다. 기차는 오로지 출발과 도착의 공간 이동만 있을 뿐, 그 사이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즉 기차의 빠른 속도는 약속에 늦지 않는 시간과 그 시간에 접하게 되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지만 그 사이 공간을 완전히 지워 버렸다. 이는 근대의 목적 지향적, 속도 지향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을 거부하는 인위적인 힘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관이 깊다. 중력을 거스르고, 인위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가치가 바로 이러한 서양적 창조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서도 여유보다는 목적을, 사색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풍조를 가져온 근대의 일면을 보여 준 것이다.

- ① (가)의 ‘서둘러 달려갈 일’은 ‘특급열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목적지로 가는 것을, (다)의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는 목적보다는 여유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겠군.
- ② (가)의 ‘설렘’은 근대의 삶과 연결되고, (다)의 시원하고 힘찬 ‘물줄기’는 자연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제 스스로의 힘’을 통해 ‘모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위적인 물줄기이겠군.
- ③ (가)의 ‘내가 할 일’은 사색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다)의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여는 서양적 창조성과 연관이 있겠군.
- ④ (가)의 ‘그것들’은 속도 지향적 세계관의 반복적 일상을 의미하고, (다)의 ‘심산유곡’은 ‘거대한 자연의 힘’의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공간과는 대비되는 공간일 수 있겠군.
- ⑤ (가)의 ‘복사꽃 숲’은 우리 삶에서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다)의 ‘문명의 질서’는 목적 지향적 삶을 중시하는 글쓴이의 태도와 연관이 있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이면 행길로 문을 낸 서편 집들 중에 간혹 문등(門燈)을 단 집이 있었다. 그것은 토지, 가옥, 인사 소개업이라는 간판을 붙인 집이었다.

그것도 같은 집에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퉁이를 지나면 있으려니 하였던 문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저 모퉁이는 어두우려니 하고 가면 의외의 새 문등이 켜 있기도 하였다.

요사이 문등이 또 한 개 새로이 켜지었다. 저녁마다 장구 소리와 어울려서 나어린 계집애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새어나오던 집이었다.

새 문등이 달리자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그 집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 놓은 생초 모기장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모기쑥을 피우고 있다.

그 집도 작년까지는 모기쑥을 피웠던 것이다.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모기쑥 내에 잠긴 이 골목에서, 붉은 도련을 친 그 초록 모기장을 볼 때마다, 병일이는 위 꼭지를 척 돌려 놓은 수박을 연상하였다.

이 골목을 지나가면 새로운 시구 계획으로 갓 닦아 놓은 넓은 길에 나서게 된다.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는 아직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헐린 옛 성 밑에는 낮고 작은 고가들이 들추어 놓은 고분 속같이 침울하게 별려져 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차면(遮面)같이, 횡담에 함석 영을 덮은 새 집들이 단별 줄로 나란히 서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바라크식 외곽 거리의 맞은편은, 아직도 집들이 들어 서지 않았었다. 시탄 장사, 장목 장사, 웅기 노점, 시멘트로 만드는 토관 제조장 등, 성 밖에 빈 땅을 이용하는 장사 터가 그저 남아 있었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뻗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때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멩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

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 장부의 시재(時在)를 적어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세었다. 병일이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세 현금이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간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흙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하여짐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빗소리밖에는…… 고요한 저녁이었다.

병일이는 다시 쇼윈도 앞으로 돌아서서 연하여 하품을 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사진이 붙어 있는 뒤 판장이 젖혀지며 커다란 얼굴이 쭈욱 나타났다.

병일이의 얼굴과 마주친 그 눈은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잠시 동안 병일이를 바라보다가, 붉은 손에 잡힌 비로 쇼윈도 안을 쓸어 내고 전등알까지 쓰다듬었다.

전등알에는 천장과 연하여 풀솜 오리 같은 거미줄이 얹혀

[A] 있었다.

비를 놓고 부채로 쇼윈도 안의 하루살이와 파리를 쫓아내는 그의 혈색 좋은 커다란 얼굴은 직사되는 광선에 번질번질 빛나 보이었다. 그리고 그의 미간에 칼자국같이 깊이 잡힌 한 줄기의 주름살과, 구둣솔을 잘라 붙인 듯한 거친 눈썹과, 인중에 먹물같이 흐른 커다란 코 그림자는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백지 판에 모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었다.

병일이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나 아까 보던 사진의 그것은 모두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암흑한 적막 속에 잠겨 들고 만 옛 성문 누각의 한편 추녀 끝만을 적시는 듯이 보이는 빗발이 다시 한번 병일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렇게 서서 의식의 문밖에 쏟아지는 낙숫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있는 병일이는, 광선이 희화화한 쇼윈도 안의 초상이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흘금흘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혈된 눈을 마주 보았다.

변한 바람세에 휘어진 빗발이 그들이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는 유리창에 뿌려서 빗방울은 금시에 미끄러져서 길게 흘러내렸다.

‘희화된 초상화에서 흐르는 땀방울!’

병일이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착각을 꾸며 보았다. 지금껏 자기를 흘금흘금 바라보는 그 충혈된 눈에 작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었다.

⑦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었다.

현관문을 열어 잡고 하늘을 쳐다보던 그는,

“비가 대단하구만요. 이리로 들어와서 비를 그으시지요. 자 들어오세요.”

하고, 역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병일이에게 말하였다.

그의 적삼 아래로는 뚱뚱한 배가 드러나 보였다. 가차 없이 비를 쏟고 있는 푸렁뚱한 하늘같이 그의 내어 민 배가 병일이의 조급한 신경을 거슬리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같이 친절 한 것은 등실한 그 ㉠배의 성격이거니 생각하며 권한 대로 현관문 안에 들어섰다.

그는 병일이에게 의자를 권하고 이어서 휘파람을 불면서 조금 전에 떼어 들었던 판장에서 사진들을 떼기 시작하였다.

함석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어수선한 좁은 방 안을 침울하게 하였다.

구둣솔을 잘라 붙인 듯한 눈썹을 찌푸려서 미간의 외줄기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두드러진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휘파람 소리는 날카롭게 들리었다.

병일이는 빗소리가 섞여 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걸요.”

휘파람을 불다 말고 사진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며 병일이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두고 보시우. 정녕코 금년에는 탕수가 나고야 맙네다.”

“……글쎄요……?”

병일이는 역시 이렇게 대답할밖에 없었다.

“서문의 문지기 구령이가 현신을 했답니다.”

“……?”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병일이에게 어떤 커다란 사변의 전말이나 설명하듯이 그는 일손을 멈추고

“어제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실 때…….”

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받고 성문 안을 들어갈 때에 누각 기왓장이 우산을 스치고 발 앞에 철썩철썩 떨어졌다. 그래 쳐다본즉 그 넓은 기왓골에 10여 골이나 걸친 큰 구령이가 박죽 같은 머리를 내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그중에 날쌔 젊은이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였다. 노인들은 성문지기 구령이를 해하면 재변이 난다고 야단쳤다. 갈기려는 채찍을 피하여 달아나는 구령이를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며, 잡지 말라는 노인들을

둘러싼 젊은이들은 문 위에 올라간 사람을 지휘하며 웃고 떠들었다. 마침내 구렁이는 수많은 기왓골 틈으로 들어가 숨고 말았다. 안심한 노인들은 분한 것 놓쳤다고 떠드는 젊은이들 틈에서 이 여름에는 무서운 홍수가 나리라고 걱정하였다고 한다.

“노인들의 증험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고 그의 말은 끝났다.

“글쎄요?”

병일이는 이렇게 꼭 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기가 미안하였다. 그렇다고 “설마 그럴까요.” 하였다가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게 되면…… 귀찮은 일이다.

그때에 현관문으로 작은 식함(食函)이 들어왔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 치우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받아 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하고 술을 따라서 병일이에게 건네었다.

병일은 코끝에 달을 듯한 술잔을 피하여 물리았으며,

“미안합니다만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지 마시구 자, 한 잔 드시우. 자, 이미 권하던 잔이니 한 잔만…….”

아직 인사도 안 한 그가 이렇게 치근스럽게 술을 권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굳이 권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호의로 생각할밖에 없었고 더구나 돌아가는 잔이라든가 권하던 잔이라든가 하는 술꾼들의 미신적 습관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끝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서 받아 마시고는 잔을 그이 앞에 놓았다. 술을 따라서 잔을 건네면 이 술추렴에 한몫 드는 셈이 되겠는 고로 빈 잔을 놓은 것이었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도련: 저고리나 두루마기 자락의 가장자리.

*탕수: '홍수'의 평안도 방언.

24

▶ 23051-0129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이는 대상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이의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연출하여 빛의 밝기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는 대상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보이는 대상의 형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보는 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사물로 보이는 대상이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보는 이가 체험하는 신기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보이지 않는 신체의 부분을 암시하는 서술을 통해 보는 이가 추측하는 대상의 전체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25

▶ 23051-013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의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는 쇼윈도 안 초상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인물의 얼굴임을 알아차린다.
- ② ㉡으로 인해 병일은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반감을 상대방에게 드러낸다.
- ③ ㉠으로 인해 사진사는 병일에게 사진관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게 되고, ㉡으로 인해 병일은 사진사의 권유에 응한다.
- ④ ㉠은 사진사에게 홍수에 대한 화젯거리를 제공하고, ㉡은 병일이 사진사의 예견에 동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⑤ ㉠과 ㉡은 병일의 속내를 파악한 사진사가 병일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6

▶ 23051-01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랫소리가 들려오던 집에 새로운 문등이 달리자 문밖에서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한다.
- ② 병일이 봉직하고 있는 공장은 옛 성문 밖 신흥 도시의 공장 지대에 위치한다.
- ③ 병일은 퇴근을 하면서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항상 같은 길을 걷는다.
- ④ 사진사가 노인들의 증험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대해 병일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사진사는 술과 음식이 도착하자 병일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여러 번 권한다.

27

▶ 23051-01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비 오는 길」은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한다. 관심이란 특정한 시각을 통해 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인물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와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 과거 인습에 대한 세대 간 사고의 대립, 기계 문물에 대한 회의 등이다. 「비 오는 길」은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 오는 관습을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여름 초저녁 서편 집 안방에 쳐 놓은 ‘모기장’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 방식에 주목하는 병일의 관심을 나타내는 대상이겠군.
- ② 병일이 ‘신원 보증인’이 없어 주인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병일의 처지를 드러내겠군.
- ③ 병일이 사진관의 사진을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것은, 병일이 기계 문물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④ 서문 기왓골의 ‘구렁이’를 대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반응은, 과거의 인습에 대한 세대 간의 사고가 대립하고 있음을 나타내겠군.
- ⑤ 병일이 비운 잔에 술을 따라 사진사에게 다시 술잔을 권하지 않는 것은, ‘미신적 습관’을 부정함에도 술꾼들의 관습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중기 문신 임제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등 여섯 신하가 죽음을 맞은 병자사화(丙子士禍)를 소재로 하여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병자사화 당시 박팽년, 성삼문 등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성삼문은 거사를 미루자고 제안하였고 무인(武人)이었던 유응부는 문신들의 유유부단함을 질책하며 예정대로 거사를 치르자고 주장하였는데, 논의 끝에 성삼문의 의견대로 거사를 미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사의 전말이 발각되어 단종 복위 운동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임제는 바로 이러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하여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원생몽유록」을 창작한 것이었다.

이처럼 몽유록은 조선 시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들이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서사 양식이다. 특히 몽유록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사는 몽유자의 시각을 통해 전개된다. 몽유자는 환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로서,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뇌가 몽유 과정 속에도 반영되어 현실 세계와 몽유 세계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즉 몽유자의 특성과 인식이 꿈꾸기 전과 꿈속 세계, 꿈꾼 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몽유자 본인이 주인공인 동시에 작중 서술자인 경우도 있지만,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나) 세상에 원자허(元子虛)라는 자가 있었으니 강개한 선비였다. 기개가 씩씩하고 도량이 크되 시대를 타고나지 못해 나은(羅隱)과 같은 억울함을 자주 품었고, 원헌(原憲)과 같은 가난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아침에 나가 밭 갈고 밤에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되, 벽을 뚫어 빛을 끌어들이거나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잡아 넣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두 썼다. 역사책을 보다가 나라가 망하고 운수가 바뀌어 세력이 없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과연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때에 처하여 나라의 패망을 보면서도 부지할 힘이 없어 애태우는 양했다.

중추 한가위 저녁에 달빛을 좇아 책을 펼쳐 보는데 밤이 무르익자 피로해져 결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몸이 갑자기 가벼이 들려 아득히 오르니, 시원한 기분이 마치 바람을 몰고 올라가는 양하고, 표연한 느낌이 마치 깃이 돌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어느 강기슭에 이르렀더니, 긴 물결이 굽이쳐 이어지고 첩첩 산이 나타났다. 때는 한밤중이어서 사방이 적막한데, 달빛이 대낮 같고 물결이 비단처럼 빛나며, 바람이 갈잎을 울리고 이슬이 단풍 숲에서 굴러떨어졌다. 처량히 눈을 들어 보니 마치 천만 가지 느껴움과 답답함이 불평스러운 기운으로 맺혀 풀 수 없을 듯하였

다. 이에 ‘휘익’ 하고 길게 휘파람 소리를 내고는 낭랑하게 절구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한스러운 강 물결 오염하며 흐르지 못하고
갈대꽃 단풍잎은 차갑게 비비며 스삭거린다
분명코 장사의 강 언덕이로구나
달빛도 흰데 영령들은 어디서 노니는가?

배회하며 기웃기웃하는 즈음에 갑자기 발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얼마 있더니 갈대꽃 덩굴 깊은 곳에서 어떤 호남아가 번득 뛰쳐나왔다. 복건과 유생복 차림에 표정이 맑고 눈썹이 준수하였다. 늙름하기가 수양산 백이숙제 같았다. 그가 앞으로 와서 읊하며 말하기를,

“자허는 어찌 그리 더디 오시는가? 우리 임금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하셨다네.”

하니, 자허는 그가 산의 정령이나 나무 도깨비인가 의심하여 놀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뛰어난 이로다.’ 감탄하며 이내 뒤따라 걷게 되었다. 백여 걸음쯤 가자 우뚝 솟은 정자가 강 앞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앉아 있는데 옷차림이 임금 같았고, 또 다섯 사람이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벼슬아치의 복장을 했으며 각기 등급이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호걸들로서 모습이 당당하고 기백이 양양하였다. 가슴속에는 고마(叩馬)와 도해(蹈海)의 의리와 경천봉일(擎天捧日)의 충성을 품고 있었다. 진실로 이른바 6척의 어린 고주(孤主)를 부탁하고 백 리의 제후국을 맡길 만한 자들이었다.

자허가 다다른 것을 보고는 다섯 사람이 모두 나와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자허는 마주 예를 행하지 않고 이들을 지나쳐 곧장 앞으로 걸어가 임금을 알현하였다. 그러고는 도로 걸어 나와 물러서서는 말석에 꿇어앉아 모두 좌정하기를 기다렸다. 복건을 쓴 자가 자허의 오른쪽에 앉고, 그 위로는 다섯 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자허는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부터 난초 향기와 같은 명성을 들어온 터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소. 좋은 밤에 만났으니 상대를 의아해하지는 마시구려!”

하니, 자허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서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서로 고금의 흥망을 논하였는데 다들 열심이어서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복건 쓴 자는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요순탕무는 만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에 여우처럼 알랑거리러 선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에 근거를 대고,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는 자가 그로부터 명분을 삼습니다. 천 년의 도도한 세월

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임금
은 역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임금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임금의 거룩함이 있으면서 네 임금
과 같은 시대에 처하였다면 가하거니와, 네 임금의 거룩함이
없고 네 임금의 때도 아니라면 불가한 것이다. 네 임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네 임금을 빙자하여 명분을 삼는 자들이 역적
일 뿐이다.”

복건 쓴 자가 손을 올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였다.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 그 말이 지나치게 분격하는 줄 저 스스
로도 몰랐나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만두시오! 아름다운 손님이 자리에 계시니 한가로운 다른
일을 논하지는 마시지요. 달 희고 바람 맑은데, 이 같은 좋은
밤을 어찌 그냥 넘기겠는가?”

하고는, 곧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주고 강마을에서 술을 받아 오
게 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아 임금이 잔을 잡고 흐느껴 울며 여섯 사람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경들은 각자 자기 뜻을 말하여 말 못 할 억울함을 풀어 보지
않겠는가?”

하니, 여섯 사람이 말했다.

㉠ “임금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시면 신들이 거기에 화답하겠나
이다.”

임금이 비감한 표정으로 옷깃을 매만지고, 슬픔을 이기지 못
해 노래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임금과 다섯 신하, 원자하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
에 대해 울분을 토하거나, 지난 역사에 대한 회한을 담아 시를 읊는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뱀 같은 한 선비가 들어왔다. 키가 남들보
다 월등히 크고 기상이 유달리 용맹하며, 얼굴은 대춧빛처럼 검
붉고 눈은 별과 같이 빛났다. 문산의 의리, 중자의 맑음으로 위풍
이 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존경심이 일게 하였다. 그가 앞으
로 나아가 임금을 알현하고 다섯 사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아!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이어서 칼을 뽑아 들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비분강개하
여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았다.

바람 소슬하니 나뭇잎 지고 물결은 차다

칼 어루만져 긴 휘파람 불 제 북두성 비쬄도다

[A]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도다

그 도량 어떠한가 둥그런 명월이로다

아아!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누구라 탓하랴

노래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
운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귀를 찢는
천둥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허도 놀라 깨어
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허의 벗 해월거사가 듣고는 통곡하여 말하기를,

“무릇 옛날부터 임금이 흐리멍덩하고 신하가 사리에 어두우면
마침내 나라가 전복되는 지경에 이른 일이 많았네. 자네 이야
기를 들어 보니 그 임금 노릇 하는 자는 필시 현명한 임금으로
여겨지고, 그 여섯 사람도 모두 충의로운 신하임이 분명하네.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어찌 이리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호라! 세력이 그렇게 만
든 것인가? 시운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렇다면 불가불 세
력과 시운에 원인을 돌려야 하고, 또한 하늘에도 돌리지 않을
수 없네. 하늘에 원인을 돌린다면 **복선화음***은 하늘의 도가 아
니었던가? 무릇 하늘에 원인을 돌릴 수 없다면 캄캄하고 막연
하여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우주는 아득하여 다만 지
사(志士)의 한을 보텔 뿐이로세.”

하였다.

— 임제, 「원생몽유록」

*나은: 중국의 이름 높은 시인으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지만 과거 시험에 열 번
이나 낙제를 하였음.

*원현: 춘추 전국 시대 공자의 제자로, 집안이 가난했지만 절의를 지키고 안빈낙도
를 추구하였음.

*장사: 초나라의 굴원이 빠져 죽기도 하고, 그 지류에 초의제가 시해되어 버려진 곳.

*고마: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으로, 주나라 무임금이 은나라를 치러 갈 때
백이와 숙제가 말고삐를 잡고 막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도해: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뜻으로, 춘추 전국 시대 노충연이라는 선비가 신원연
이 진나라를 황제국으로 높이겠다고 한 말을 듣고 바다에 몸을 던지려 했다는 고
사에서 유래함.

*경천봉일: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떠받들 충성.

*요순탕무: 요임금은 자신의 신하였던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었고, 탕왕과 무왕은
각각 하나라와 상나라를 정벌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음.

*복선화음: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줌.

28

▶ 23051-0133

(가)를 참고할 때 (나)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자허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묘사한 것은 몽유자의 성격을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군.
- ② 임몽 이전에 시대 현실에 대해 원자허가 가진 울분은 몽중에서 임금이 높이 평가하는 원자허의 지조로 이어지는군.
- ③ 해월거사가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몽유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군.
- ④ 해월거사가 임금과 여섯 신하에 대해 안타까워한 것은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⑤ 원자허가 꿈속에서 여러 사람과 국가의 흥망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군.

29

▶ 23051-0134

㉠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하는 자허의 모습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자허의 연민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② ‘후세에 여우처럼 알랑거려 선위를 차지하는 자’에 관한 ‘복건 쓴 자’의 인식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한 사육신의 입장과 유사하군.
- ③ ‘자기 뜻을 말하여’ 풀어 보고자 하는 ‘말 못 할 억울함’은 병자사화로 인해 단종과 여섯 신하가 모두 느낄 법한 감정에 해당하는군.
- ④ ‘아!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는 세조를 처단할 계획이 실패한 과정에서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한 유응부의 입장이 연상되는군.
- ⑤ ‘복선화음은 하늘의 도가 아니었던가?’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30

▶ 23051-01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원자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② 원자허는 복건 쓴 이의 외양을 근거로 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③ 임금은 요순탕무에 대하여 복건 쓴 이의 평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었다.
- ④ 원자허는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꿈에서 깨려고 노력하였다.
- ⑤ 해월거사는 원자허의 꿈에 등장한 여섯 신하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31

▶ 23051-0136

㉡에 대해 임금이 <보기>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할 때,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강 물결 흑흑 흐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도다
 내 한스러움 길고 길어 그와 같구나
 살아서는 천승의 임금 죽어서는 외로운 닢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제왕은 거짓 높임*
 옛 나라 백성들 모조리 항적에게 옮겨 주었네
 예닐곱 신하 함께하니 닢을 그나마 기대했더니
 오늘 밤이 무슨 밤이뇨 강 누각에 같이 올랐노라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느니

*새 임금은 가짜 임금: 초나라 항량이 민심을 바탕으로 초희왕을 옹립한.

*제왕은 거짓 높임: 항량의 조카가 실권을 잡고 초희왕을 ‘의제’라 칭하며 거짓으로 높이면서 업신여김.

- ① [A]에는 <보기>와 달리 화자의 고뇌를 부각하는 자연물이 드러나 있다.
- ② [A]에는 <보기>와 달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보기>에는 [A]와 달리 노래를 듣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A]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가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보기>에는 모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黃蜂白蝶)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춘흥(春氣春興)을 조롱한다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廬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옛글에도 일러 있고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피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피꼬리
 황금 갑옷 펼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벽력같이 우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 화류 장대(章臺)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삼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꿈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나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阿房宮)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
 사구평대(沙丘坪臺) 저문 날에 여산청초(驪山靑草) 속절
 없다^{*}

— 작자 미상, 「영산가(廬山歌)」

^{*}비류직하삼천척 / 의시은하낙구천: 삼천 척이나 되는 폭포가 나는 듯이 곧장 쏟아져 내리니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네. 이백(李白)의 「망여산폭포」의 한 구절.

^{*}타기황앵: 나무를 쳐서 피꼬리를 날아가게 함.

^{*}사구평대 ~ 속절없다: '사구평대'는 진시황이 죽은 곳, '여산'은 진시황이 묻힌 곳으로, 인생무상을 의미함.

(나) 벼슬을 저마다 흥면 농부(農夫) 흥 리 뉘 이시며
 의원(醫員)이 병(病) 고치면 북망산(北邙山)이 저려하라
 아히야 잔(盞) ㄴ특 부어라 내 뿔대로 흥리라

— 김창업

(다) 술 먹고 뿔뿔 뿔쳐 뿔거러 가며 먹지 마자 크게 맹서(盟誓) |
 흥엿더니
 춘하추동(春夏秋冬) 호시절(好時節)의 ㉡ 남린(南隣) 북촌(北村)
 다 청(請) 흥여 희호동락(熙熙同樂) 흥을 머데 어허 맹서(盟

誓) | 가소(笑) | 로다

인생(人生)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니 먹고 놀며 흥노라

— 작자 미상

32

▶ 23051-013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화자가 특정한 대상을 부르며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 ③ (다)는 감탄사와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 23051-0138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고전 시가에서 덧없고 유한한 인생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은 살아 있는 동안 유희를 즐기자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잡가로 무상감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희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는 사대부 가사의 영향을 받아 옛 글을 인용하거나 중국 고사를 언급하는 등 상류층의 언어 관습을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관직에 나서지 않았던 김창업의 시조로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설시조인 (다)도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며 즐기겠다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장황한 수사나 일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① (가)의 ‘만장폭포’는 화자가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자연을 가리키고, ‘여산이 여기로다’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의원이 병 고치면 북망산이 저려하랴’는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인생이 유한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는 화자가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빗댄 것으로, (다)의 ‘희호동락 흥을 머뭇’는 화자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는 중국 고사를 언급한 것으로, (다)의 ‘술 먹고 빚둑 뵈쳐 뵈저러 가며’는 일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내 뿔대로 흐리라’와 (다)의 ‘먹고 놀며 흐노라’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4

▶ 23051-013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화자가 재회를 바라는 존재이다.
- ② ㉯는 ㉮와 달리 화자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 ③ ㉮와 ㉯는 모두 화자가 장점을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존재이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존재이고, ㉯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35~38] 다음은 공공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조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복시와 사랑군의 관계자를 모시고 행복시 공공 화장장 건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행복시는 3년 전에 행복 시민을 위한 공공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몇 차례의 공청회와 지역 주민 간담회를 통해 행복시 △△동에 공공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비용 중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의 위치가 사랑군과 가까운 지역이라 사랑군은 화장장 건립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군 관계자 1: 공공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동은 행복시의 중심지보다 사랑군에 더 가까워 인접 지역인 사랑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위치상 행복 시민들이 이 동할 때 교통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시는 위치 선정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시 관계자 1: 건립 예정지인 △△동의 경우 지난 3년간 행복 시민들의 합의 과정과 전문가의 입지 타당도 검증을 모두 거친 곳입니다. 지역 선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위치 변경은 어렵습니다.

사랑군 관계자 2: 행복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것은 맞지만 인접 지역인 사랑 군민들의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군민들은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관의 훼손, 주변의 교통 혼잡, 오염 물질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토지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복시 관계자 2: 화장장 건립을 했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많지 않았고, 건립 이전과 이후의 지가 하락이나 지역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건립될 화장장은 외부 디자인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했고, 오염 물질 배출 기준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예정입니다. 같은 시설을 가진 다른 지자체 화장장에서 배출 물질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오염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랑군이 사랑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랑군 관계자 1: 홍보를 지원해 주신다면 막을 이유는 없겠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복시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사랑군의 인접 지역에 건립되는 것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립 반대를 위한 시민 단체들이 결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저항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복시 관계자 1: 상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재 기존의 화장

장이 포화 상태라서 서둘러 화장장을 건립해야 하므로 건립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위원: 그러면 위치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화장장을 사랑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행복시 관계자 2: 행복시 추진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인접 지역인 사랑 군민들에게도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랑군도 시설 건립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D]

사랑군 관계자 2: 물론 사랑 군민들이 시설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건립에 대한 반대는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시의 인구가 사랑군의 두 배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시 관계자 2: 인구수를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후 논의를 통해 그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사랑군 관계자 1: 그 방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는 공공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사랑 군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시 관계자 1: 민원 해소를 위한 보상은 추후 이뤄질 내용이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알 수 없고 사랑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분담의 비율을 정하는 비용은 건립 비용만으로 한정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 건립을 위해 행복시가 확보한 예산에서 사랑군이 분담하는 예산만큼 보전될 것이니 그 예산 중 일부를 사랑군 민원 해결을 위한 보상에 지원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E]

사랑군 관계자 1: 그 내용은 보상 지원 예상 금액을 산정한 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논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행복시 관계자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조정 위원: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 이후 논의에서 뱉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5

▶ 23051-0140

[A]~[E]에 나타난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화장장 건립 예정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화장장의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군.
- ② [B]에서는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나열하면서 주민 합의 및 전문가 검증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군.
- ③ [C]에서는 동일한 화장장을 운영 중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우려가 부적절함을 주장했군.
- ④ [D]에서는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긍정의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군.
- ⑤ [E]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른 대안을 제안했군.

36

▶ 23051-0141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정 위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상 참여자들의 논의 내용과 발언 시간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협상의 진행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 ② 지난 협의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조정해서 공정한 논의를 진행한다.
- ③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논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협상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조정한다.
- ④ 화장장의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 및 협상을 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협상의 진행에 따라 절충안을 제안한다.
- ⑤ 화장장의 건립 위치와 건립 순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쟁점을 정리하고 상호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을 제안한다.

37

▶ 23051-0142

협상의 내용 중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복시 관계자 1: 화장장 건립 비용과 행복시가 사랑군에 지분할 예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② 사랑군 관계자 1: 화장장 건립 비용과 사랑군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③ 행복시 관계자 2: 행복시와 사랑군이 지분할 화장장 건립 비용과 다른 지자체들이 지분할 건립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④ 사랑군 관계자 2: 화장장 건립 비용과 행복시와 사랑군이 각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⑤ 조정 위원: 행복시가 지분할 화장장 건립 비용과 사랑군이 지분할 화장장의 사용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8

▶ 23051-0143

협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장장의 건립 예정 장소가 사랑군과 인접해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건립 예정지는 변경하지 않는다.
- ② 행복시에 세워질 화장장을 사랑 군민들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사랑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인다.
- ③ 행복시에 존재하는 기존의 화장장이 포화 상태임을 감안해 사랑군은 화장장 완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④ 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랑 군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행복시는 사랑 군민에 대한 사랑군의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 ⑤ 행복시가 원래 예정했던 화장장 건립 비용 중 일부를 사랑군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39~42] (가)는 면접이고, (나)는 (가)의 ‘면접 대상자’가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면접자: 언어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면접 대상자: 저는 원래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언어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부조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자가 되어 이렇게 언어가 사회 부조리를 확대하는 원리를 파헤쳐서 사람들이 부조리한 언어적 선동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면접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전문적 지식을 배웠을 때 훌륭한 언어학자로 성장할 수 있겠죠. 본인의 언어 탐구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접 대상자: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국어와 영어 교과 성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두 교과의 수업 시간에 수행한 다양한 탐구 과제에 대해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학년 때 열린 교내 교과 탐구 대회에서 국어의 피동 문장과 영어의 수동태 문장을 비교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여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면접자: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합격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도서관 근처에서 다른 학생들이 학내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소리의 크기가 관련 법이 정한 기준 내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방음 시설이 좋지 않아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 보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면접 대상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학생들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제가 함부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좀 더 줄이거나 시위 장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정중한 화법으로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자: 그런 부탁을 했지만 그 학생들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 대상자: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배려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내 문제는 제게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학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서 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위가 일찍 종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면접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격하게 될 경우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간단히 말해 보세요.

면접 대상자: 제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물론 전공 역량을 기르는 데 좋은 책들을 스스로 찾아 꾸준히 읽겠습니다. 또 사회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시사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면접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나) 대입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고등학교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면접 대비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보라도 모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입시 면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대비를 위한 조언의 글을 남기고자 한다.

먼저, 지원자의 전공 관련 능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 단순히 능력의 수준을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는 능력의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다. 사례는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것보다는 객관적이면서도 적절한 사례 한두 가지를 드는 것이 진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답변한다. 극단적인 답변이 소신 있는 사람의 시원시원한 답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독선적인 판단의 결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면접에서는 ㉢ 일관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특히 면접의 앞부분에서 한 말과 뒷부분에서 한 말이 서로 충돌하여 일관성이 무너지면 이는 전체적인 답변의 신뢰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면접에서 초지일관 자신이 지켜야 할 관점을 정해 놓고, '그러한 관점을 적용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면접을 잘 치를 가능성이 커진다. 지원하려는 학교의 인재상과 학과의 특성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친구와 함께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해 볼 것을 권장한다.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한다.

39

▶ 23051-0144

(가)에 나타난 면접자의 말하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접 대상자의 답변을 요약하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두세 어절의 짧은 문장으로 면접 대상자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줄 수 있는 판정 의문문을 사용하며 면접을 시작하고 있다.
- ④ 면접 대상자의 직전 답변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한 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질문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를 면접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40

▶ 23051-0145

다음은 (가)의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준비하며 떠올린 생각의 일부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원 동기에 관한 질문, 대학 생활 계획에 관한 질문,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묻는 질문은 나을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준비해 뒀다.

㉡ 언어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내 생각이 드러나도록 지원 동기를 밝혀야겠다. 대학 생활 계획에 대해 말할 때는 ㉢ 전공과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야겠다. ㉣ 지원 동기와 일관성이 있게 동아리 활동 계획을 언급해야겠다. 학교의 인재상으로 ㉤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인재상에 적절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내용도 제시해야겠다.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교과 평가와 교내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부각해야겠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1

▶ 23051-0146

(나)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에 제시된 방안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② 예상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고려하여 필자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글을 읽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글에 제시된 방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여 그 방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글의 전개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정보가 제시될 것을 예고하여 독자가 글을 읽으며 관심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2

▶ 23051-0147

(나)를 보완하기 위해 (가)에 제시된 답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예로 시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법에 대한 답변을 활용한다.
- ② ㉡의 예로 고등학교 때의 성적, 과제 수행 결과, 수상 경험에 대한 답변을 활용한다.
- ③ ㉢의 예로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을 활용한다.
- ④ ㉣의 예로 대학에서의 학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활용한다.
- ⑤ ㉤의 예로 고등학교 때의 성적에 대한 답변과 시위의 소음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함께 엮어 활용한다.

[43~45]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쓰기 과제: ‘○○시 청소년 정책 제안 제도’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글쓰기 계획

- 건의문은 공적인 성격의 글이니, 예상 독자에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해야지.㉠
- 제안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하니, 제안하는 대중교통 체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해야지.㉡
- 제안 적용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니, 건의 내용을 적용할 지역을 한정하여 제시해야지.㉢
-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하니, ○○시가 대중교통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부담을 제시해야지.㉣
-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드러내야 하니, 제안을 실현할 주체와 실현의 과정을 소개해야지.㉤

(나) 학생의 초고

○○ 시민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 청소년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시 일부 지역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을 설정하고, 승객은 자신이 지정한 정류장에서 선택한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버스의 일 운행 횟수가 4회 이내인 곳이 많아 한번 버스를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당장 필요할 때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더구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버스 이용객이 많지 않아 운임료만으로는 버스 운행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버스 회사에 ○○시가 매년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현재 대중교통 체제를 전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업자들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 시청과 ○○시 농촌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시의 농촌 지역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에 대한 ○○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시는 대중교통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면서도, ○○시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현재 우리 ○○시가 실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 제안이 주민들이 더 행복한 ○○시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

▶ 23051-0148

㉠~㉤ 중 ‘학생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 23051-0149

학생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안의 유용성을 주체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후, 제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을 표현하면 좋겠어.
 ② 제안이 실현될 경우 사라질 현재의 문제점을 나열한 후, 제안이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어.
 ③ 제안이 수용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달한 후, 제안의 요점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좋겠어.
 ④ 제안이 실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효용을 정리한 후,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⑤ 제안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후, 제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좋겠어.

45

▶ 23051-0150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신문 기사

□□군은 2년 전 일부 지역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예약 시간에 맞춰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군이 내년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확대 예정 지역의 대중교통 사업체들이 영업권 침해 및 제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전문가 인터뷰

대중교통 사업자가 적자를 지속할 경우 지자체가 적자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버스 이용 인구가 적어 적자의 폭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 통계 자료

1. ○○시 농촌 지역 거주 주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9%	12%	79%

2. 불만족 사유(1에서 불만족 응답자만)

사유	비율
운행 시간 간격이 길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려움.	55%
출퇴근(등하교) 시간에 이용객이 너무 많음.	23%
버스 내 시설이 노후화됨.	12%
기타	10%

- ① ㉡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DRT의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다.
 ② ㉣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시 농촌 지역에 DRT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한다.
 ③ ㉤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제시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족 정도에 대한 수치 정보를 추가한다.
 ④ ㉡와 ㉤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를 DRT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추가한다.
 ⑤ ㉣와 ㉤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DRT를 도입하면 대중교통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림으로써 대중교통 사업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음을 추가한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 작용식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모형은 완결된 메시지를 가진 의사소통의 단위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 준다.

① 상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작은 언어 단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큰 언어 단위의 이해로 확대하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별’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먼저 낱자 ‘ㅂ, ㄹ, ㄷ’을 인지하고, 다음으로 낱자들의 결합인 ‘ㅂ+ㄹ+ㄷ’로 된 글자를 확인한 후, 그 글자의 의미를 떠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단위인 낱자의 식별부터 큰 단위인 글 전체의 의미 파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능이다. 하지만 독자가 가진 어휘나 통사 구조에 대한 지식과 문맥 또한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독서 과정을 직선적이고 상향적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텍스트 해독을 중시하는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이런 가정이나 추측은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는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매우 어려울 때에는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추측을 하지 않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텍스트 내용이 매우 쉬울 때에도 굳이 텍스트에 대한 가정이나 추측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상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텍스트 해독을 하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하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배경지식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또한 상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모형은 상대적으로 독서 과정에서 중심으로 여기고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텍스트의 직선적인 해독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을 중시하고 이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하향식 모형의 절충적 관점이 상호 작용식 모형이다.

상호 작용식 모형에서 말하는 상호 작용이란 독자가 텍스트 이해에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상호 작용식 모형에서는 어휘 식별 및 인식과 같은 낮은 수준의 독서 기능부터 가정과 추측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같은 상위 수준의 독서 기능까지 다양한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며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에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의 의미 해독을 통해 더 정교해지고, 텍스트의 의미 해독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과 추측 등이 개입하면서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 작용식 모형은 독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이 배경지식을 활용한 의미 구성 기능의 문제인지,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

01

▶ 23051-015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독서의 과정을 텍스트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 독서의 과정을 독자 중심으로 생각한다.
- ② ㉠에서 독서의 과정으로 여기는 텍스트의 해독은 ㉡에서는 독서의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은 배경지식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가정하고 추측하여 구성하는 것을 독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 ④ ㉡은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가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텍스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과 ㉡이 독서 과정에서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상호 작용식 모형이다.

02

▶ 23051-015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동일한 낱자들로 구성된 ‘아버저’와 ‘아버지’를 읽을 때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아버저’보다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버지’가 더 쉽게 인식된다.
- ㉡ ‘사자-의사’, ‘호랑이-간호사’로 단어를 짝을 지어 제시했을 때보다 ‘사자-호랑이’, ‘의사-간호사’로 단어를 짝을 지어 제시했을 때 지각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 ㉢ ‘역시 그는 손이 컸다.’라는 문장은 ‘손’이라는 단어로 인해 중의성을 가지지만, ‘그는 이번에도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으면 명확한 의미로 해석된다.

- ① ㉠은 독서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 ② ㉠은 독자의 배경지식이 텍스트의 정보를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독자와 텍스트가 상호 작용하는 사례이군.
- ③ ㉡은 단어를 주어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④ ㉢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 ⑤ ㉢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임을 보여 주므로 독서를 상호 작용하는 행위로 보는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군.

03

▶ 23051-015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의 글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이 일은 간단하다. 우선 물건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때로는 한 묶음으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물건을 함께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조금씩 처리하는 것이 낫다. 앞서 언급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일은 꽤 복잡하지만 생활의 한 부분이므로 결국은 알아 두어야 한다. 미래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물건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 내용물은 나중에 당신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 글은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내용을 기억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세탁기 사용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을 미리 알고 읽으면 쉽게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 ①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이 오히려 텍스트의 내용 추측에 어려움을 준다.
- ③ 텍스트의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해석이 어렵다면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독서를 할 때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텍스트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⑤ 텍스트의 내용이 어려울 때는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추측보다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순서대로 읽는 것이 독서에 도움이 된다.

[04~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의 제삼자에게까지 파급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가격 설정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 효과 중에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제삼자에게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제삼자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한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금 부과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많이 일어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제 활동을 사회 적정량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해당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공급자는 생산을 줄이게 되고,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해당 물건의 생산이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활동은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생산 주체에게 사회가 받은 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어, 해당 생산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늘리게 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학 이론인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 비용이란 상품의 가격 외에 개인 간 거래와 협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뿐 아니라 노력 등 무형의 비용도 포함한다.

[A]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충

분히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즈의 정리의 한계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 비용이 높고,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나) 공공재란 공원이자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04

▶ 23051-015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그 근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해결법을 연구한 경제 이론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05

▶ 23051-0155

㉠,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세금 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의 원인이 된다.
- ③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④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해당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⑤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06

▶ 23051-015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갑은 밝고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 유리창을 크게 만들어 집 안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였다. 얼마 뒤 갑의 옆집에 살던 을은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로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을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을의 집이 높아 갑의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 병의 공장과 정의 가축 농장은 서로 인근에 있었다. 그런데 병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정의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① 갑과 을이 서로 협상을 원하며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② 을이 갑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빛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③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정의 농장뿐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의 농장에도 피해를 끼쳤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④ 병과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나 협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⑤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정의 가축이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07

▶ 23051-015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 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A~D로 분류한 것이다.

재화 및 서비스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
A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B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C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D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음.

- ① 어떤 주택에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A에 해당한다.
- ②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는 B에 해당한다.
- ③ C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이 없다면 그 국가의 D를 이용할 수 없다.
- ⑤ D의 생산을 민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08

▶ 23051-0158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는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 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① 한산한 고속 도로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꽉 막힌 고속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사적 재화와 동일하군.
- ③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하군.
- ④ 심야의 일반 도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일반 도로는 시간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클럽재와 동일할 수 있겠군.

09

▶ 23051-0159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팬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 ② 그녀는 날아오는 공을 받았다.
- ③ 그는 어떤 옷이든지 잘 받는다.
- ④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였다.
- ⑤ 그 둘은 달빛을 받고 나란히 섰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내면 의식과 정신에 대한 연구보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이다. 조작적 조건화란 어떤 주체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수행하게 만들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개념에는 강화와 소거, 벌 등이 있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 하는데, 보상을 통해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한다. 강화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 강화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가지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부적 강화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강화에 의해 특정 행동이 학습되었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된 행동이 점차 사라지는데 이를 소거라고 한다. 따라서 학습된 행동이 소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강화 계획이라고 한다. 즉 강화 계획은 대상이 학습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주어지는 보상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강화 계획은 우선 지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지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고,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을 가끔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이 제시되는 간격과 비율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간격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고, 비율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 행동의 횟수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다. 각각의 계획은 간격과 비율이 고정적이냐 변동적이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의 하위 계획으로 분류된다. 즉 간헐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나면 정해진 시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고정 간격 계획, 행동이 일어나면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변동 간격 계획, 정해진 횟수의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이 주어지는 고정 비율 계획, 일정하지 않은 행동 횟수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변동 비율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강화 계획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지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이 주어지므로 행동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인한 보상이 제거되면 급격히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므로, 행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데에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더 효과적이다.

강화와 반대로 특정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을 벌이라고 하는데, 벌에는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다. 수여성 벌은 행동의 주체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거성 벌은 행동의 주체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벌은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만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한 벌을 주거나 너무 자주 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동의 빈도나 강도의 개선에 역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강화도 마찬가지이다.

10

▶ 23051-016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정 이론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원리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행동주의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와 다른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를 비교하여 행동주의 심리학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한 개념 중 일부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영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⑤ 행동주의 심리학이 등장한 배경을 언급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여러 개념을 통해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1

▶ 23051-016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② ㉠과 ㉡은 모두 대상에게 특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 ③ ㉠은 대상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은 대상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은 대상이 이미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학습시키는 것이고, ㉡은 대상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 ⑤ ㉠은 보상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은 보상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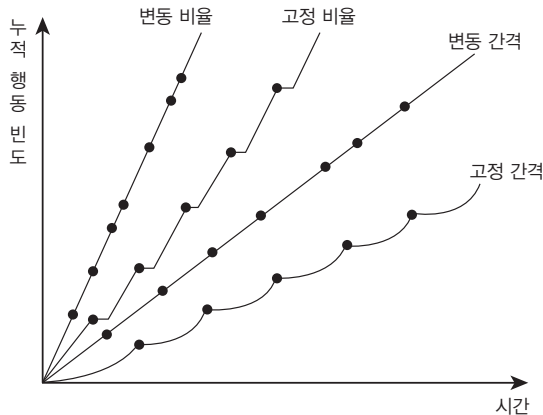
12

▶ 23051-016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상의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을 각각 사용하였더니, 시간에 따른 대상의 누적 행동 빈도의 변화가 아래의 그래프와 같았다. 행동의 강화에 사용한 보상은 모두 일치하였으며, 선 위의 점은 보상을 제시한 시점이다.



- ① 강화를 받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면 강화를 받은 직후에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 ② 정해진 횟수의 행동 후에 보상을 제시한다면 보상을 제시하기 바로 직전에는 행동의 빈도가 줄어든다.
- ③ 대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시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의 빈도가 점차 감소한다.
- ④ 강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보상을 제시한 직후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대상이 강화를 언제 받는지 예측할 때보다 예측하지 못할 때 시간에 따른 누적 행동의 빈도가 더 일관되게 증가한다.

13

▶ 23051-016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도서관에 방문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도서관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아이가 소란을 일으킬 때 도서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 ㉡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면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교사가 독서 과제를 제시하였더니,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소란스러운 행동이 줄어들었다.
- ㉣ 어떤 제과 회사에서 특정 번호가 적힌 추첨권을 과자 한 봉지에 하나씩 넣어 판매하였고, 매주 회사 웹 사이트에 추첨 번호를 올려 같은 번호가 적힌 추첨권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 ㉤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부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에게 관심을 주었다. 이후 아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부모는 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주며 달래 주었다.

- ① ㉠: 아이가 도서관을 싫어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도서관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 고객이 후기 열 개를 작성할 때마다 인터넷 쇼핑몰이 포인트를 지급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은 고정 비율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 ③ ㉢: 학생이 독서를 싫어한다면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소란스러운 행동을 줄이기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수여성 별을 제공한 것이다.
- ④ ㉣: 제과 회사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추첨 번호를 웹 사이트에 올렸다면, 제과 회사는 과자 판매를 위해 고정 간격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 ⑤ ㉤: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부모의 관심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점차 소거될 것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과 식물, 세균 등과 같은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이다.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가 전달되고 발현되는 일반적인 흐름을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후 R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 리보솜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mRNA라고 한다. 리보솜은 m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체내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달리 DNA가 아닌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한다. 사람에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도 지질 이중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세포의 단백질의 결합이 일어날 때, 바이러스의 막과 사람의 세포막이 융합되어 바이러스 안의 유전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지만 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지질 이중막이 없고 단백질 껍질만 가진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숙주의 세포가 특이적으로 결합한 후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 유전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지만, 모든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다른 동물의 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기도 하고, 사람의 세포 중 신경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혈액 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후 유전자를 복제하여 증식하기 시작한다. RNA가 유전 물질인 바이러스 중에는 RNA 그 자체가 mRNA가 되어 숙주 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고, RNA로부터 DNA를 만들고 이 DNA의 정보로 다시 mRNA를 만들어 이를 통해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한다.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일단 RNA나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많이 복제하면서 이를 감싸게 될 단백질 껍질 또한 많이 만들어 낸다. 그러면 저절로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이 조립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 조립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증식한다. 이와 같은 증식 방식

은 유전 물질 없이 단백질 껍질만 있거나 단백질 껍질 없이 유전 물질만 있는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증식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하면 숙주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우선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리보솜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한다. 이로 인해 숙주의 세포는 점점 죽어 가는데 이런 현상을 세포 병변 효과라고 한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을 제공하여 숙주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간염 바이러스이다.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지만 간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간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개 바이러스는 감염 후 단기간 내에 질병을 일으키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궁 경부암이나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이다. 인체에는 p53과 RB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 암을 억제한다. 하지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거나 과도한 증식이 제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사람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 23051-016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이러스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세균에도 기생할 수 있다.
- ② 숙주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세포 병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③ 바이러스 중에는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 ④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것은 중심 원리의 흐름과 일치한다.
- ⑤ 지질 이중막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15

▶ 23051-016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명체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다.
 ② 생명체는 ㉠이나 ㉡에 담긴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③ ㉡ 중에는 ㉠이 가진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④ 모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이 없으며 ㉡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⑤ ㉠을 통해 ㉡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을 통해 ㉠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16

▶ 23051-0166

다음은 읽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읽글을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독서 활동: 글을 읽는 중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기

- 질문 1.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A]

- 질문 2.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면 왜 숙주의 세포가 죽어 가는가?

→ 답: [B]

	[A]	[B]
①	바이러스는 증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전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②	바이러스는 증식에 필요한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파괴하여, 숙주의 세포가 바이러스로 변하기 때문이다.
③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통해 숙주의 세포를 바이러스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 수 없도록 바이러스가 방해하기 때문이다.
④	바이러스는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⑤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만 스스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주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바이러스가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17

▶ 23051-0167

읽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인체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인 T 세포나 대식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면역 세포가 모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계속 자극하면서 더 많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일부는 이런 면역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어 너무 많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 세포에 의해 인체에 필요 이상의 많은 염증이 생기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게 되고 고열,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일어나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한다.

- ①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여 증식하는 것을 인체가 감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군.
 ②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과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인체의 면역 세포에게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③ 바이러스는 인체의 세포를 죽게 만들 수 없지만, 사이토카인 단백질은 인체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 수 있군.
 ④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아야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날 수 있군.
 ⑤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간염이 걸리는 것과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인체가 손상되는 것은 모두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이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살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살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살을 씻고」

(나)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뽕뽕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동동둥둥 울려 나겠니

-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18

▶ 23051-016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는 시구를 반복하며 대상의 고통과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쓰면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9

▶ 23051-016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3연에서는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를 직접 제시하면서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② 1연에서 제시된 ‘느티나무’가 ‘지난겨울’에 처했던 상황을 2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별 하나 매달지 못’한 ‘느티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2연에서 ‘느티나무’의 ‘상처’에서 나던 ‘울음소리’를 3연에서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흐느끼던 소리’와 관련지어 ‘느티나무’와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오늘은’으로 시상을 전환하며 ‘느티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생생히 내뿜는’ 모습을 통해 변화된 ‘느티나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3연에서 드러난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0

▶ 23051-017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② ㉡은 ㉠과 달리 노동으로 인해 힘겨운 삶과 연결된다.
- ③ ㉡은 ㉠과 달리 삶의 고통을 씻어 내고자 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④ ㉠과 ㉡은 모두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 ⑤ ㉠과 ㉡은 모두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는 삶과 연결된다.

21

▶ 23051-0171

〈보기〉를 읽고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공동체 붕괴로 인한 슬픔을 겪으면서도 농촌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산업화는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우리 문학은 이농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고통과 환경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된 자연물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거나,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었다.

- ① (가)에서 ‘흐르는 것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셋강 바닥 썩은 물’에 ‘삼을 씻고’, ‘다시 어두워 돌아가’는 모습은 환경 오염과 도시 노동자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 ③ (나)의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가 ‘푸르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표현한 것은 산업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 소리 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는 모습은 이농 현상으로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사람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험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짹— 짹—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 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 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뭘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노새 같다, 애.”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 집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 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앗, 엇,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펄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데그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

[A] 머뭇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재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매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 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링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편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낮모르는 아저씨 품

에 안겼다. 땃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위! 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 번 들자 아이구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뱅뱅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변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 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 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웅, 웅,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뒹굴고, 곱게 싣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찡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통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학생이 황망히 길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변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 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구 이걸 어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 갔다. 콩나물 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 알이 데굴데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둥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세 명이 이놈의 노새,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위낙 젓 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한 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복세를 떨고는 다시 한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 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중략)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르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

[B]

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둘 중의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나) S#65. 양재천/낮

길게 뻗은 양재천을 따라 나 있는 조깅 코스.

출발 모임 장소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양재천 마라톤 클럽 사람들.

정욱, 자전거를 끌고 초원과 함께 옆에 서 있다.

오십 대의 사람 줄게 생긴 클럽 회장이 정욱과 초원을 회원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구석에서 춘천 마라톤 참가 신청서를 나눠 주고 있는 총무.

구경하는 초원에게도 무심코 한 장 준다.

- 시간 경과 -

마라톤 클럽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초원.

정욱은 사이클을 타고 초원 옆을 따라가며, 코치를 해 주고 있다.

초원을 앞지르는 어떤 사람.

초원, 그러자 갑자기 속력을 내서 그 사람을 따라잡는다.

정욱: (자전거를 멈추고) 야야! 스토옴!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초원에게 얘기하는 정욱.

정욱: 처음에는 천천히……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 알았어?

초원: 네.

다시 뛰기 시작하는 초원…… 정욱도 자전거에 올라탄다.

그때, 초원을 앞질러 가는 다른 사람…… 그러자 초원, 또 속력을 내서 총알처럼 따라간다.

화가 나서 자전거를 내팽개친 정욱,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초원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화를 내려다가 참고, 차분하게 말을 꺼낸다.

정욱: 처음에 빨리 뛰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못 뛰단 말야. (뭔가 생각하다가) 초원아…… 세령게티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뭐지?

초원: (숨을 몰아쉬며) 치타. 시속 113킬로미터.

정욱: 그래. 하지만 치타는 오래 못 뛰잖아…… 너무 빨리 뛰니까. 오래오래 뛰려면,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야.

초원: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야~.

정욱: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빨리 뛰면 지쳐서 쓰러져. 이동 중에 지쳐서 무리에서 떨어진 얼룩말은 어떻게 되지?

초원: 낙오된 얼룩말들은 사자와 하이에나 밥이 된다~.

정욱: 그래. 그러니까 있는 힘껏 막 뛰면 안 돼. 자, 호흡 고르고, 다시 뛰어.

정욱, 초원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

초원, 뛰기 시작하지만, 정욱의 손을 놓지 않는다.

정욱도 초원의 손을 잡고 속도를 올려 주며, 천천히 뛰기 시작한다.

초원의 손을 보는 정욱, 손등에 어린 시절에 물어뜯은 흉터가 남아 있는 걸 본다.

흉터가 있는 손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뛰는 정욱.

초원: 코치 선생님~.

정욱: 응? (고개를 들어 초원을 바라본다.)

초원: …… 내일도 또 오세요?

정욱: (약간 놀라며) …… 그럼.

초원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는 정욱…… 뭔가 불이 살짝 웃는 것처럼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손으로, 스쳐 가는 풀잎들을 훑으며 달리는 초원.

옆으로 펼쳐진 풀잎들에 비스듬히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초원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욱……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초원의 표정, 평화로워 보인다.

‘어쩌면 정말 뛰는 걸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녀석…….’

정욱, 고개를 돌려 세워 놓은 자전거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고, 초원의 손을 놓으려 한다.

하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는 초원.

초원을 바라보는 정욱…… 웬지 자신도 손을 딱히 놓기는 싫다.

그대로 계속 달려가는 두 사람…….

자전거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심장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 어느새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슬로 모션으로 보여지는 정욱과 초원…….

여우비가 내리고, 두 사람 조금씩 흠뻑리는 빗속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달리고 있다.

빗속에서 내달리는 그들의 육체가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난다.

한강이 보이는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두 사람.

— 시간 경과 —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자전거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온 두 사람.

길옆 풀밭 위에 사지를 짝 뺀 누운 정욱……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다.

옆에 누운 초원,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있다.

(중략)

S#66. 경마장/낮

㉠지축을 울리며 트랙을 힘차게 질주하는 경주마들.

㉡말의 근육, 갈기 등이 아름답게 클로즈업된다.

㉢뺨이 나간 얼굴로 달리는 말들을 쳐다보고 있는 초원.

㉣그 옆에선, 그런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정욱.

㉤초원과 정욱, 달리는 말 자체를 구경하며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서 있다.

S#67. 서울랜드/낮

초원을 ㉠동물원에 데려간 정욱.

정욱: 자, 니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에 있는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실컷 봐.

그런데 막상 동물원에 간 초원은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다.

기운 없고, 마치 자폐아 같은 동물들을 보면서 표정이 더 이상해진다.

손을 뻗어 동물원 우리 창살을 잡는 초원.

카메라가 우리 안에서 초원을 잡는다. 초원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듯 보인다.

정욱, 생각보다 초원이 재미없어하는 게 이상하다는 표정.

인파들 속을 걷는 초원과 정욱.

웬지 불안한 표정의 초원…… 정욱의 손을 꼭 잡는다.

다정해 보이기도,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두 사람.

인서트 - 철창에 갇힌 동물들이 그려진 초원의 일기장.

(중략)

S#76. 마라톤 대회장/아침

중간 규모의 마라톤 대회.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초원…… 그 옆에는 경숙과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경숙: 초원아! 이 아저씨만 따라가, 알았지? 혼자 빨리 뛰면 안 돼?

초원: 네.

페이스메이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끌게요. 잡지에 나온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네, 녀석!

출발선으로 가서 서는 초원과 페이스메이커.

경숙의 얼굴 위로 사람들이 출발하는 사운드가 들린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경숙.

(5킬로미터 지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달리고 있는 초원.

그러나 뒷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자, 금방 페이스메이커를 앞지른다.

그런 초원을 제지시키느라 곤욕스러운 페이스메이커.

그렇게 몇 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페이스메이커를 앞질러 혼자 달리는 초원.

(결승점)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는 경숙…….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학을 접는다.

(30킬로미터 지점)

작열하는 태양…… 집어삼킬 듯 달궂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마라토너들…….

초원,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오다, 괴로운 표정으로 다리가 풀리는 듯하더니 넘어진다.

(결승점)

초조하게 초원을 기다리고 있는 경숙.

앰블런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업고 달려온다.

경숙, 사색이 되어 뛰어가 보지만, 다행히 초원은 아니다. 의료진이 몰려와 쓰러진 사람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지만,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지 의식이 없다.

이를 바라보는 경숙…… 두려움이 스쳐 간다.

그때, 본부석 응급 천막 쪽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

경숙, 그쪽으로 다가가자 초원이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걸 발견한다.

초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사 안 맞아요!

무릎에 반창고를 붙인 채 사색이 되어 있는 초원에게 달려가는 경숙.
 의사: 중간에 탈진해 쓰러졌어요. 수액 주사를 놔 주려고 하는
 건데…….

- 시간 경과 -

대회장 입구를 걸어 나오는 초원과 경숙.
 경숙,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시상식이 열리는지,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난다.
 초원, 멈춰 서서 바라보더니 그쪽을 향해 걸어가려 한다. 경숙이
 손을 잡는다.

초원: 메달!

경숙: 완주해야지 메달 주는 거야, 초원아.

초원: (시상대를 바라보며) 메달 주세요…….

피곤하게 생겼다. 그때, 메달을 목에 건 아저씨가 지나간다.

경숙: (메달을 가리키며) 저 그거…… 완주해야만 주나요?

아저씨: 아. 이거요? (자기 메달을 보며) 참가 신청한 사람은 다
 줘요. 나두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뭐.

본부석에서 메달을 타 오는 경숙.

메달을 손에 들고 걸어오면서,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

초원, 엄마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메달을 손바닥에 꼭
 쥐는 경숙.

그리고 메달 쥔 손을 뒤로 감춘다. 그녀의 표정을 스치고 가는 어
 떤 결심…….

초원 앞에 다가온 경숙.

경숙: 초원아, 메달 안 준대. 완주 못 해서.

S#77. 초원의 학교 직업 훈련장/낮

교장, 담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숙.

십여 명의 아이들이 나사를 조이고 끼우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교장: (경숙을 보며) 그만큼이면 학교로선 충분히 도와드린 겁니
 다.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이제 직업
 교육도…….

경숙: 직업 교육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담임: (난처한) 어머님…… 마라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직장
 을 다니면서도 취미로 충분히…….

경숙: 집착이라뇨. 난 초원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고 싶은 거뿐이
 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는 것도 잘못입니까?

교장: 하지만 초원이는 남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아뇨. 똑같아요. 달릴 때만큼은…….

- 정윤철·송예진·윤진호, 「말아톤」

22

▶ 23051-017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골에서 말 마차를 끌기도 했던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온 후
노새를 몰게 되었다.
- ② 큰길로 나온 노새는 달려오던 차들에 놀라 길 복판으로 뛰어
들었다.
- ③ 변화가에서 노새의 방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눈앞으로 노
새가 뛰어오자 호기심을 가지고 노새를 쳐다보았다.
- ④ 시장에서 소동을 벌이는 노새의 앞뒤를 막던 경찰들은 노새
를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 ⑤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다니던 ‘나’에게 사람들은 별일을
다 겪는다고 말을 걸었다.

23

▶ 23051-017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새의 행위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속내를 서술하고 있다.
- ② [B]는 노새를 찾겠다는 목표를 이루려는 인물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는 노새로 인해 벌어진 상황을, [B]는 노새를 찾아다니며 느낀 인물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의인화된 노새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B]는 인물들의 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노새로 인해 심화되는 인물들의 외적 갈등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24

▶ 23051-0174

(나)의 S#66에서 ㉠~㉣를 촬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서 질주하는 경주마들과 경마장 트랙이 함께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② ㉡: 말의 근육과 갈기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말의 근육과 갈기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③ ㉢: 초원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여 주어 초원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해야겠군.
- ④ ㉣: 정육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초원이 보이도록 해야겠군.
- ⑤ ㉤: 인파가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원경으로 나타내어 두 인물이 관중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해야겠군.

25

▶ 23051-017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가 노새의 행방을 알게 되는 곳이고, ㉣은 정육이 초원의 본심을 알게 되는 곳이다.
- ② ㉠은 '나'가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는 곳이고, ㉣은 정육이 초원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곳이다.
- ③ ㉠은 '나'가 노새에 대한 걱정을 숨기는 곳이고, ㉣은 초원이 정육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숨기는 곳이다.
- ④ ㉠은 '나'가 과거에 못 이룬 소망을 실현하는 곳이고, ㉣은 초원이 소망을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곳이다.
- ⑤ ㉠은 '나'가 아버지에게서 말과 닮은 유사성을 발견하는 곳이고, ㉣은 초원과 동물들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26

▶ 23051-017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나)에서 경숙은 학교 교장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가)에서 아버지는 마부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나)에서 초원은 정육에게 마라톤을 배울 의욕을 보인다.
- ③ (가)에서 얼룩말은 아버지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고, (나)에서 얼룩말은 초원이 주의해야 할 행동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④ (가)에서 '나'와 아버지는 노새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고, (나)에서 초원은 다른 사람이 말해 준 방식에 따라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
- ⑤ (가)에서 노새는 뛰는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포획된 대상이 되고, (나)에서 초원은 달리기로 인해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

27

▶ 23051-017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주어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은 서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는 특정한 행위 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생략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제시함으로써,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들은 알 수 없는 동 시간대·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거나 일어난 상황에 대해 수용자가 전체적으로 파악 또는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 ① (가)에서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와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와 같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상반된 분위기를 통해 제시한 것은, 독자가 상황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동물원의 상황에서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왔었던 과거의 일을 제시한 것은, 과거와 대비되는 동물원에 대한 인물의 인상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나)의 S#65에서 ‘한강이 보이는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두 사람.’과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장면 사이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것은, 날씨 변화를 통해 생략된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생략된 시간 전 심화되었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서 초원이 페이스메이커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과 ‘결승점’에서 초원을 기다리는 경숙의 상황을 나란히 제시한 것은, 인물들이 알 수 없는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용자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 이후의 ‘결승점’과 ‘30킬로미터 지점’ 이후의 ‘결승점’에서 초원을 기다리는 경숙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사대부 신분임에도 과거에 실패하고 장사꾼으로 살던 주생은 가세가 기울어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다 이웃에 있는 노 승상 댁에 갔다가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만나고, 배도의 주선으로 선화의 동생 국영의 스승이 된 주생은 선화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시구를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화가 무슨 근심이 있어 이런 시를 지었소?”

선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어찌 여자의 몸으로서 편안하게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군님은 절단지기(折檀之譏)를 어겼고, 저는 행로지욕(行露之辱)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하루아침에 우리

[A] 사랑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동리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해로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후, 눈물을 주룩 흘리며 원한 품은 태도를 보였다. 거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주생은 눈물을 훔쳐 주며 위로해 말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를 얻을 수 없겠는가. 내 나중에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으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을 마오.”

선화는 눈물을 거두며 치사했다.

“낭군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록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물을 캐어 정성껏 제사를 받드는 일만은 다하겠습니다.”

선화는 향합을 열었다. 조그만 화장 거울을 꺼내어 둘로 깨뜨렸다.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주생에게 주며,

“동방화촉(洞房華燭)의 밤을 기다렸다 다시 하나로 합하와요.”

했다. 또한 흰 비단부채를 주면서 말했다.

“이 두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이옵니다. 제 소원이오니 이 몸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아내로 생각하시어 가을밤의 원한을 끼치지 마시옵고, 혹시 항아(姮娥)가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꼭 밝은 달빛을 어여뵈여겨 아껴 주옵소서.”

이후로 그들은 밤이면 만났고 새벽으로 헤어졌다. 하룻밤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길까 두려워 그녀의 집으로 가서 잤다. 밤사이 선화는 기다리지 못해 주생의 방에까지 갔다. 선화는 주생이 쓰던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보았다. 그녀는 배도가 지은 시 두어 폭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고 질투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까맣게 지워 버렸다. 그 밑에다 ‘㉠안아미사(眼兒眉詞)’ 일 절을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 버렸다.

그 사(詞)는 다음과 같았다.

창밖의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 이취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 안에 가득한데,
깊은 밤 고요는 수심을 자아내네.
이 외로운 밤 방탕한 입은 소식조차 없으니,
어디서 노니느라 나머지 잊었는가.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하나,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해.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러운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꺼려 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생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하게 하고자 함이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행(學行)을 칭찬했다. 아들 글 가르치는 데 수고를 한다고 치사했다. 그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배도는 혼자 앉았으니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주생의 주머니를 꺼려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詞)가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보았다. 마음은 자못 언짢았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밑에 ‘안아미사’를 보니 선화가 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 사를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싸매 두었다. 앉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침착하게 물었다.

“낭군님은 이곳에서 무작정 머물러 있을 건가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생은,

“국영이가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탓이오.”

하고 대답했다.

“그래요. 처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불가분한 마음을 다해야겠지요.”

주생은 얼굴을 붉히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하고 물었다. 배도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럴수록 주생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고개를 꼭 숙이고 방바닥만 응시했다. 배도는 그 사를 꺼내어 주생의 면전에 던지며 말했다.

“담장을 넘어 서로를 따르고, 담에 구멍을 뚫어 서로를 엿보았구로. 이 어찌 군자가 할 짓입니까. 난 지금 곧장 들어가 부인에게 말씀 올리렵니다.”

배도는 몸을 일으켰다. 주생은 황망히 그녀를 붙잡아 앉히고 사실을 고백했다.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빌었다.

“선화는 나와 백년해로를 굳게 언약한 사이인데, 어찌 죽을 곳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배도는 마지못해 뜻을 돌리고는,

“그렇다면 곧 저와 같이 돌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낭군님이 저와의 언약을 어긴 바에야 제가 무어라고 맹세를 지킬 것이오리까.”

하고 말했다.

주생은 하는 수 없었다. 부인에게 탄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배도는 선화와 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평이 끓어올라서였다.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했다. 몸은 나날이 여위어 갔다. 끝내는 병을 빙자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스무 날이 지나갔다. 돌연 국영이 병으로 죽었다는 전갈이 왔다. 주생은 제물을 갖춰 영구 앞에 나아가 전(奠)을 올렸다.

선화 역시 주생과 이별한 후 상사의 병이 깊어 기거동작도 남의 손을 빌려야 했다. 문득 주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났다. 담장 소복을 하고 주렴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주생은 전을 끝냈다. 멀리 선화가 보였다. 눈을 찡긐해 정을 표시했다. 머리를 숙이고 서성거리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배도마저 병들어 눕고 말았다.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저는 봉비하체로서 그들에만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가기도 전에 시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낭군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옷이며 좋은 관현악기가 소용이 없고, 전날의 소원도 다 그만입니다. 다만 원하옵는 바는 제가 죽은 후에 낭군님은 선화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죽은 뒤 시신은 낭군님이 왕래하시는 길가에 묻어 주신다면 죽더라도 산 것같이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했다.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 주랑이여, 부디부디 몸조심하시어요. 몸조심하…….”
이러기를 몇 번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 권필, 「주생전」

* 절단지기: 『시경(詩經)』 「정풍(鄭風)」 〈장중자(將仲子)〉에 나오는 말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그 집 처녀의 정조를 빼앗는 죄를 범했다는 뜻.

* 행로지옥: 『시경(詩經)』 「소남(召南)」 〈행로(行露)〉 편에 나오는 말로, 길을 가다가 무례한 남자에게 정조를 빼앗겼다는 뜻.

* 봉비하체: 순무와 무의 뿌리라는 뜻으로, 뿌리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젊고 예쁠 때도 있고 늙고 병들 때도 있음을 이르는 말.

28

▶ 23051-017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사랑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특정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한 두 인물의 행위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9

▶ 23051-017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생전」은 사대부 신분이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하고 장사에 나선 주생,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지만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배도, 안정적인 사대부 가문의 규수인 선화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린 애정 소설이다. 애정 소설은 표면에 나타난 남녀 간의 애정담 속에 인물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애정을 나누는 인물 간에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표면적 사랑 이면에는 사대부 가문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거나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한다. 또한 특정 인물이 결핍이 있는 경우 다른 인물과의 결연을 통해 결핍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인물 간의 결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일부러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 ① 선화가 화장 거울을 깨뜨려 한쪽을 주생에게 준 것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 ② 선화가 원망스러운 얼굴을 하지 않고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본 사실을 주생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이미 심리적 결핍을 충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③ 주생이 마음을 다하여 국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배도가 이야기한 것은 주생의 심리적 결핍이 국영의 가문에서 해소되기를 배도가 기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④ 주생이 승상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에 머무른 것은 주생에 대한 배도의 불안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⑤ 배도가 병이 들어 숨을 거두는 것은 사대부 가문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의 욕구가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30

▶ 23051-018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상대를 용서하려 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제시하며 상대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를 질책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신이 근심을 갖게 된 원인을 제시하며 상대를 조롱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처한 고된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자신이 겪은 시련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31

▶ 23051-0181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삼입 시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인물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주생전」에서도 ‘안아미사(眼兒眉詞)’를 통해 선화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었다.

- ① ‘창밖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사라진다는 것에서 주생이 곁에 없는 선화의 상황이 연상된다.
- ② ‘오동나무 그림자’가 집 안에 가득한 것에서 선화에 대한 주생의 오해를 유발한 장애물의 모습이 연상된다.
- ③ 소식조차 없는 ‘방탕한 입’에서 평소와 달리 자신에게 오지 않은 주생에 대한 선화의 부정적 인식이 연상된다.
- ④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하다고 한 것에서 주생의 행위로 인해 고뇌하는 선화의 모습이 연상된다.
- ⑤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는 것에서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간 후 독수공방하는 선화의 모습이 연상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 매화(梅花)는 불셔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 아히야 올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야라

〈제1수〉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씌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예로다

㉣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하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酒) 장만 하야라

〈제6수〉

㉤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덩거니

긴 줌 계우 썬니 아적 날이 눅파 잇다

아히야 서리 녹앗느냐 닐고자도 하노라

〈제8수〉

이바 ㉥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 현스 현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하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이바 아히들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몇쫓 가리

백 년(百年)이 하 초초(草草)하니 나느 굿버하노라*

〈제10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자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자해: 게.

*굿버하노라: 서운해하노라.

32

▶ 23051-0182

〈보기〉의 ㉠, ㉡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원사시가」는 작가가 귀향한 후 창작한 연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사계절의 흥취를 노래하는 ㉠사시가(四時歌)와 선달그믐날 밤의 감회를 노래하는 ㉡제석(除夕)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특정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다. 사시가는 농촌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는 전가 시조(田家時調)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석은 탄로가(嘆老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시가의 마지막 수에서 겨울의 농촌 생활을 묘사한 후, 제석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 방식은 겨울이라는 동일한 계절을 배경으로 전가 시조와 탄로가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이 전가 시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외모 변화와 화자가 현재 느끼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은 계절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는 선달그믐날 밤에 새해를 떠올리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군.
- ④ ㉠에 나타난 겨울의 계절감과 관련된 소재를, ㉡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형상화하면서 ㉠과 ㉡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군.
- ⑤ ㉠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각각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군.

33

▶ 23051-018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를 위해 화자가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장점을 칭찬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단점을 지적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여 깨우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대상이다.

34

▶ 23051-018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꽃이 지거나 잎이 변색하는 것을 통해 동일한 계절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의문의 방식으로 농촌 생활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④ ㉣: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대비하여 점차 날씨가 풀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늙은 화자가 덧없는 세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5~38] 다음은 동아리 임원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이번 축제 기간에 우리 시 창작 동아리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지 생각해 봤어?

학생 2: 해마다 우리 동아리는 시화전을 열었잖아.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게 어때?

학생 3: 경험이 쌓여 있으니 안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겠네. 그런데 매년 똑같은 행사를 열면 사람들이 진부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엔 시화전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좀 다르게 하면 좋겠어. [A]

학생 2: 우리가 시화전을 여는 게 시 창작 동아리의 특색을 널리 알리려는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기는 하겠다.

학생 1: 예전과 다른 방식의 시화전을 하자는 거네. 나도 좋아. 그럼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학생 3: 전시되는 시화 중에 일부는 디지털 시화로 제작하는 거야. 배경 그림에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배경 그림 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든가 날씨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처럼 말이야.

학생 1: 아, 얼마 전에 한 디지털 아트 전시관에 갔다가 명화에 그런 효과를 준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 정말 독특하고 새로운 행사가 될 것 같아. [B]

학생 2: 멋진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디지털 시화를 제작하려면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학생 3: 나하고 송희가 지난 학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업을 받으며 실습을 해 봐서 잘할 수 있어. 어차피 모든 시화를 디지털로 제작할 게 아니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섯 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러면 문제없겠네.

학생 1: 좋아. 그런데 디지털 시화를 보여 주려면 컴퓨터나 대형 모니터 같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 여섯 세트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학생 3: 대형 모니터보다 가독성이 떨어지기는 할 텐데, 소형 모니터를 장착한 컴퓨터를 여섯 세트 빌려 볼까? 대형 모니터를 여러 대 빌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학생 1: 소형 모니터가 장착된 컴퓨터도 여섯 세트면 대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학생 2: 행사 장소의 특성상 모니터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여섯 세트를 배치하는 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적절하지 않아. 한쪽에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를 한 세트만 설치하고, 여섯 작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하는 건 어떨까? [C]

바로 옆에 디지털 시화로 전시되는 작품 목록을 붙여서 관람객들이 놓치는 작품이 없도록 안내하고 말아야.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되겠다.

학생 1: 그러면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 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하자. 그 정도라면 우리 동아리의 예산으로 대여할 수 있겠어. 그럼 디지털 시화로 제작할 시는 어떻게 선정하지? 다들 자기 작품을 디지털로 전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학생 2: 모니터 한 대에 여섯 작품이 번갈아 나오게 하면 빠르게 관람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시화 중 일부를 못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점을 생각하면 자기 작품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학생 3: 그건 그래. 그래도 자기 작품을 디지털로 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 일단 동아리 내에서 공모를 하고 추천을 하는 게 공정할 것 같아.

학생 2: 그게 좋겠다.

학생 1: 공모를 하는 건 찬성인데, 그냥 추천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모작 중에서도 시 자체도 좋고 디지털화했을 때 더 멋진 것 같은 작품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모를 할 때 시만 제출하지 않고 디지털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작성해 제출하게 하면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할 것 같아.

학생 2: 그럼 선별을 누가 하지? 동아리 임원인 우리가 하면 될까?

학생 3: 그것보다는 공모작들을 회원들이 함께 보고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다섯 편에 투표할 수 있게 하면 친한 사람에 표를 줘서 불공정해질 위험도 완화할 수 있을 거야.

학생 1: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나아 보인다.

학생 2: 나도 동의해.

학생 1: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해 보자.

학생 2: 그래, 다들 수고했다.

학생 3: 내일 또 보자. 안녕.

35

▶ 23051-0185

[A],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행사 준비의 안정성 측면에서 ‘학생 2’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행사의 경제성 측면에서 ‘학생 2’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행사의 취지 측면에서 ‘학생 3’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④ [B]에서 ‘학생 1’은 행사의 참신성 측면에서 ‘학생 3’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⑤ [B]에서 ‘학생 2’는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학생 3’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6

▶ 23051-0186

[C]에 포함된 발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발화
- ② 상대방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발화
- ③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발화
- ④ 한계가 있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를 밝히는 발화
- ⑤ 자신이 제시한 방안의 대안을 새로 제시하는 발화

37

▶ 23051-0187

〈보기〉는 위 토의의 사안에 따른 결정 과정을 분석한 내용이다. ㄱ~ㄷ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축제 때 실시할 행사에 대해서는 ‘학생 2’와 ‘학생 3’의 제안이 대립되어 논의 끝에 ‘학생 2’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 ㄴ. 행사에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는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 2’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 ㄷ. 디지털로 제작할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학생 3’의 제안을 수정한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다른 두 명의 동의를 이루어졌고, 이후 작품 선별 주체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는 ‘학생 2’와 ‘학생 3’의 제안에 대한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ㄴ, ㄷ

38

▶ 23051-0188

위 토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 기록을 동아리 회원들이 살펴보고 〈보기〉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할 때, 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제시한 의견은? [3점]

보기

- ㄱ. 시화전의 방식을 예전과 다르게 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합니다.
- ㄴ. 디지털 시화를 제작할 때 배경 그림에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것 외에도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를 입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장비는 소리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빌려야겠지요.
- ㄷ. 저는 두 학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업을 받으면서 실습을 해 봤어요. 그러니 시화를 디지털로 제작할 때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 ㄹ. 학교에서 우수 동아리 행사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 장소에 대형 모니터가 딸린 컴퓨터를 여섯 세트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 ㅁ. 디지털로 제작할 작품을 회원들이 투표해서 선별하는 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9~42] (가)는 학생이 전문가와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대화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문가: 반갑습니다. 메일을 보니 가짜 뉴스에 대한 글을 교지에 싣고 싶다고 했는데요.

학생: 네, 저는 기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최근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통해 가짜 뉴스의 개념과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교지에 싣고 싶습니다.

전문가: 가짜 뉴스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죠. 친구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것을 보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학생: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나요?

전문가: 물론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짜 뉴스이지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오보와 구분해야 합니다. 오보는 뉴스의 생산자가 그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이며, 가짜 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일부러 가공하여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A]

학생: 가짜 뉴스는 일부러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왜 만드는 것일까요?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클릭을 많이 할수록 광고 수입이 증가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처럼 가짜 뉴스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클릭을 유도하려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

학생: 그럼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먼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 사람들이 편향된 정보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는 정보는 쉽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들만으로 이뤄진 거품 속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C]

학생: 최근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논의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문가: 처벌의 강도나 대상과 같은 사안은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선불리 대답하기 어렵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론사가 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죠. 언론사가 수준 높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진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 내면서도 가짜 뉴스의 거짓을 밝혀 준다면 가짜 뉴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

학생: 저도 말씀처럼 양질의 진짜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인이 되고 싶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

• 조사의 목적

○○ 경제 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 뉴스(Fake News)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으로 총 30조 9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듬에서는 가짜 뉴스의 개념과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사했다.

• 탐구 방법

1) 전문가와의 대화

- 대화 일시: 20××년 6월 17일
- 대상: □□ 대학교 신문 방송학과 교수
- 대화 내용: 가짜 뉴스의 개념,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

2) 자료 조사

- 조사 기간: 20××년 6월 20일 ~ 8월 20일
- 조사 매체: 가짜 뉴스 관련 도서 및 동영상
- 조사 내용: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완한 내용

• 탐구 결과

1) 개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꾸며 낸 뉴스를 의미하는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가짜 뉴스의 생성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가짜 뉴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짜 뉴스가 생기는 이유

모든 이유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클릭을 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처럼 경제적인 목

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가짜 정보를 양산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다.

3) 가짜 뉴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상들

가짜 뉴스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가짜 뉴스를 오보나 광고형 기사 등과 구별해야 한다. 오보는 가짜 뉴스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지만, 오보의 생산자는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가짜 뉴스와 다르다. 또 광고형 기사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와 동일하지만, 왜곡된 정보의 제공보다는 특정한 내용을 홍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손쉬운 방법은 뉴스의 생산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가령 신문 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사의 끝에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 등을 작성한 바이라인(Byline)이 있다.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바이라인에 개인명이 아닌 단체나 추상적인 대상이 기재된 경우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어렵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뉴스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뉴스가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는 의지와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보고서 작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언론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도 가짜 뉴스와 양질의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가 설 자리를 없앨 수 있다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1. ○○ 경제 연구원(2017),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2. △△ 뉴스(2022), 「가짜 뉴스를 피하려면 바이라인을 확인하세요.」(하락)

39

▶ 23051-0189

(가)에서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근의 경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가진 견해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
- ②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수용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의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이해한 바를 밝히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중심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40

▶ 23051-0190

[A]~[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의 글쓰기 목적과 배경지식을 확인하면서 주요 소재의 특징을 제시한다.
- ② [A]와 [C]에서는 모두 설명 대상과 비교 대상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설명 대상이 갖는 특성을 제시한다.
- ③ [B]와 [C]에서는 모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④ [B]와 [D]에서는 모두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 ⑤ [C]와 [D]에서는 모두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에 비유하여 특정 상황의 양상을 제시한다.

41

▶ 23051-0191

다음은 (가)를 실시한 학생이 (나)를 작성하기 위해 수행한 ‘자료 조사’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피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찾아야지. ㉠
-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제적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다른 이유도 찾아야지. ㉡
- 가짜 뉴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의 역할을 알게 되었으니,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사의 역할도 찾아야지. ㉢
- 가짜 뉴스와 구분해 이해해야 할 대상을 알게 되었으니, 추가로 가짜 뉴스와 비교해 볼 대상을 찾아야지. ㉣
-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전문가가 설명한 방법보다 더 손쉬운 방안을 찾아야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 23051-0192

(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사의 목적’에서는 간접 인용을 하면서 인용된 정보의 구체적인 출처와 생산 연도 등을 제시했다.
- ② ‘개관’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앞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했다.
- ③ ‘가짜 뉴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상들’에서는 다른 두 대상과 가짜 뉴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했다.
- ④ ‘가짜 뉴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예방법을 소개했다.
- ⑤ ‘보고서 작성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서는 각 주체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부정적 영향을 나열했다.

[43~45] 다음은 학생의 작문 상황 및 수집한 자료,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2023년 9월에 발간될 학교 신문에 게재하려고 함.
- 예상 독자 분석 및 작문 전략
 - 글에 제시하려는 제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주요 제도에 대해 안내해야지. ㉠
 - 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지. ㉡
 - 주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동물 복지와 거리가 먼 사육 환경의 열악함을 제시해야지. ㉢
 - 주장에 대한 관심이 적은 친구들이 있으니, 주장을 실천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드러내야지. ㉣
 -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친구들도 있으니, 반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가 가진 모순을 지적해야지. ㉤

[수집한 자료]

구분	내용	출처	생산 연도
자료 1	2019년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실태 조사 결과	농림 축산 식품부 보도 자료	2020
자료 2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제도 실시 안내	○○ 신문	2012
자료 3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비전문가의 개인 블로그	2023
자료 4	동물의 사육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대학 학위 논문	2008
자료 5	동물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	△△ 리서치 연례 보고서	2019

[초고]

우리가 흔하게 먹는 식재료 중 하나인 달걀을 생산하는 닭을 산란계라고 부른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 시점에도 아직 많은 산란계가 케이지라 불리는 A4 용지 정도 크기의 철망 우리 속에서 사육되고 있다. ▽▽ 대학의 학위 논문에 따르면 케이지 사육은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동물을 사육하면 동물의 스트레스 증가나 항생제 남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이러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물 복지는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막고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보장하는 방안이므로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

난각(달걀 껍데기) 표시제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끝자리 번호를 통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번과 2번은 케이지(닭장)에서 키우

지 않은 닭의 달걀이며, 3번과 4번은 케이지에서 키운 닭의 달걀을 의미한다. 다행히 2018년부터 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 기준 면적을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케이지 안에서 사는 닭들은 약 2년 동안 날개 한 번 제대로 펴 보지 못한다. 농림 축산 식품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동물 복지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탉은 전체 산란계 중 3.9%에 불과하다. 물론 달걀의 수요가 많은 만큼 모든 산란계를 복지 농장에서 사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그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육의 환경만이 아니라 운송 및 도축의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물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는 그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쉽게 많이 얻기 위한 기존의 사육 및 생산 과정은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축산 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점은 결국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동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소비가 더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동물은 스스로 열악한 환경에 대항할 수 없지만 공감 능력을 갖춘 인간은 동물 복지를 고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를 실천해 동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는 사육 환경을 고려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개인에게 작은 실천이지만 이러한 실천이 모여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3

▶ 23051-0193

①~⑥ 중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 23051-0194

학생이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초고’를 작성하였다. ‘초고’를 고려해 볼 때 각 자료에 대한 판단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별 기준	점검 결과
㉠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며 믿을 수 있는가?	
㉢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가?	

- ① ‘자료 1’은 동물 복지를 실천하여 생산하는 축산물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정보의 출처를 믿을 수 있으므로 ㉠과 ㉡에서 모두 ‘그렇다’로 판단했겠군.
- ② ‘자료 2’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위해 참고해야 할 제도를 소개했지만, 자료 생산 시점이 제도의 시행 시점과 거리가 있으므로 ㉠은 ‘그렇다’, ㉢은 ‘아니다’로 판단했겠군.
- ③ ‘자료 3’은 해당 글이 실릴 학교 신문의 발간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에서 ‘그렇다’로 판단했겠지만, 비전문가가 생산한 정보이므로 ㉡에서 ‘아니다’로 판단했겠군.
- ④ ‘자료 4’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할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 ㉡에서 모두 ‘그렇다’로 판단했겠군.
- ⑤ ‘자료 5’는 동물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주장의 내용과 연관되기 어렵고 매년 발간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과 ㉢에서 모두 ‘아니다’로 판단했겠군.

45

▶ 23051-0195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가 실천할 내용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부각한다.
- ② 동물 복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제시하고, 주장에 따른 실천이 동물 복지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부각한다.
- ③ 주장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의 실천을 독려하고, 주장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④ 동물의 다양한 사육 환경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가 실천할 항목을 다시 제시하고,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이상적인 결과를 부각한다.
- 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글에서 소개한 내용의 실천이 인간과 동물에게 각각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부각한다.